

성남 마을문화공동체 사업 심층연구

2018. 11

지역문화진흥원 · 성남문화재단

■ 책임연구

민경은 / 문화기획자, 여러가지연구소 대표
박지훈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 공동 연구

이수철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방주영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김유진 / 문화기획자(연구자문)

■ 연구 참여 단체

논골 도서관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섬마을공동체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해찬 양짓말

■ 사업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목차

I. 연구개요	1
I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
I -2.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7
II. 조사 설계	11
II -1. 개요	13
II -2. 질문지 설계	14
II -3. 질문지 검토	15
III. F.G.I 분석	17
III-1. 조사대상 개요	19
III-2. 분석내용	25
IV. 시사점 분석	43
부록	49

I . 연구개요

I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I -2.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I. 연구개요

I-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연구배경

- 성남문화재단은 재단 설립 이후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 창작 및 기반조성, 시민 커뮤니티에 주목하여 사랑방문화클럽,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등 시민중심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
- 지역 내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공동체 발굴·유성과 문화를 매개로 마을공동체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을 도모

<표 1 : 성남문화재단 문화공동체 발전방안 연구 중장기 계획>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3단계 7개년 계획(2014~2020) 문화공동체 발전방안 연구 중장기 계획
--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문화 성과평가	- 지표개발, 측정 - 지표보정	- 지표 및 조사 컨설팅 - 측정 및 결과 분석	- 3년차 데이터 추적 - 생활문화 트렌드 분석
생활문화 프로그램 조사	- 전국 생활문화 사례 조사 - 유형화 및 분류	- 동호회 활동가 심층 분석	- 마을공동체 심층 연구
지역현안 연구	- 성남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 문화예술지원 정책 연구	- 3단계 계획 중간 평가

-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설계하여 생활문화 성과평가, 생활문화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조사,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는 종합적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공동체 발전방안을 3년째 연구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생활문화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3년차 데이터를 추적하고 생활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생활문화의 토대인 마을사업 심층 이해를 위해 마을공동체를 심층 인터뷰 함
- 이에 따라 3단계 계획 중간 평가가 이뤄져 지역의 현안을 조명해보고 성남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성남문화재단은 마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자 성남의 마을 단위의 주민주도형 생활문화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마을커뮤니티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2018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지속 운영 됨

〈표 2 :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분류〉

	마을커뮤니티 신규사업	마을커뮤니티 지속사업	문화공간조성 지원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내 신규 참여를 원하는 마을단위의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 공동체 - 대표 또는 활동가는 반드시 사업대상지인 마을에 거주 또는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당해연도 성남시 마을공동체 리더 교육 수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017년 시범 마을 사업을 운영한 단체 (2~3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서 공간 조성 후 5년간 유지·운영할 수 있는 단체 - 커뮤니티 공간 구성에 따른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개인 또는 그룹과 협업할 수 있는 단체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마을 축제 등 - 단체 최대 7,00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 마을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미술, 마을축제 등 - 단체 최대 8,00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 20,000천원, 4개 마을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은 신규사업 1년, 지속사업 2년으로 최대 3년 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의 상황을 기초로 향후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를 반영한 2차년도, 3차년도 발전전략을 사업 초기부터 설계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이는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설계로 사업 운영단체 내용적으로 사업내용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사업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커뮤니티 자체를 리서치하고 마을커뮤니티 스스로가 진단하여 사업의 기초를 만들도록 커뮤니티 형성 정도에 따른 전략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안함
- 문화예술 관련 교육이나 체험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 재원을 사업 운영 단체가 고민하고 실험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커뮤니티 형성 정도에 따라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3년 간 지원하며 이는

마을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단계적으로 실험하며 성장하기를 도모하기 위함임

<표 3 :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형성에 따른 사업제안 예시>

	사업도입기	사업확대기	사업성숙시
사업 제안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민 요구 파악 - 단체, 주민(조직)과의 관계형성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형 문화 활동의 기획과 실천을 위한 사업 및 주민 활동가의 기획,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된 경우, 문화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변화,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

- 사업도입기에는 마을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민 요구 파악하는 리서치를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사업 수행단체와 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수행단체와 주민들의 관계가 변화에 중점을 둘 수 있음
- 사업확대기에는 사업 수행단체의 공급형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신규사업 때의 경험을 자원화 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의 기획과 실천을 위한 사업운영으로 확장시키며, 주민이 주도하게 되는 과정을 만드는 작업으로 주민 활동가의 기획,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설계 운영하도록 제안 함
- 사업성숙기에는 이미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된 경우, 문화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변화,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
-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재단 지원 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단체 연계,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대상지역단체, 주민과의 협력 및 자생적 운영 방안을 커뮤니티가 스스로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단체들의 방안 및 실행 내용을 확인
- 마을커뮤니티 문화 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 조성 후 5년간 유지 운영 할 수 있는 단체로 커뮤니티 공간 구성에 따른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개인 또는 그룹과 협업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마을커뮤니티 문화 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 선행된 사업의 맥락으로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마을 커뮤니티 발굴, 공간 및 환경 조성 등의 방식에 의한 사업효과를 기대

○ 연구목적

- 마을 단위의 문화공동체 활동에 대한 심층 연구는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 성과평가, 프로그램발전을 위한 조사, 현안을 연구하는 종합적 연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문화발전과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활용됨
- 일몰제 사업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마을 커뮤니티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공동체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 <마을커뮤니티 지속사업 및 신규사업>과 <마을공간 조성사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각 사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성남문화재단의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을 타진해보고자 함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도모 하고 효과적인 사업운영 체계를 모색하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구조화된 질문 개발 및 구성
- 향후 10년 후의 마을을 바라보고 마을커뮤니티의 운영 조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 실효성 확보와 각 사업주체별로 중장기적 사업 구조 및 전략 마련
- 마을의 자생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으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활용 및 인력양성의 방안 검토
- 마을 공동체의 자체 활동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마을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교류 생성의 문제를 다룸

I -2.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추진체계

<그림 1 : 2018 마을심층연구 추진체계>



- 7월 착수보고 및 연구계획 회의에서 책임연구원, 성남문화재단 사업담당자, 자문을 맡은 김유진 연구원이 인터뷰 계획을 수립 함
-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5개의 단체를 선정했으며, 각 단체 당 2인 이상의 인터뷰 참여자를 섭외하여 단체 대표자와 활동가 간의 시각 차이를 보려 함
- 재단의 담당자는 인터뷰 일정 조율 및 인터뷰 참여자 섭외를 담당 함
- 자문을 담당하는 김유진과 연구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 자문회의를 총 3회 실시하여 질문지 구조화의 작업 및 연구방향과 연구 시사점 도출을 논의함
- 성남문화재단이 제공한 마을 커뮤니티 기본계획안과 마을 커뮤니티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참고문헌 연구 함
- 5개의 단체 심층 인터뷰는 각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였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단체 당 대표자와 활동가로 구성하여 진행 함
- 심층 인터뷰 이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단체들과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종합토론 운영하여 마을커뮤니티 사업의 중장기적 사업 구조 및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일정

<표 4 : 2018 마을심층연구 추진단계와 일정>

단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착수토론회					
문헌연구					
연구진행 회의					
심층면접					
조사내용 분석					
종합토론회					
환류 및 보고서 인쇄					

●착수 토론회

- 2018년 7월 23일, 성남문화재단 4층 회의실
- 성남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현황 및 내용 공유
- 2018 마을 공동체 심층 연구 사업의 범위와 내용 협의

●문헌연구

- 성남문화재단의 기본계획 및 공모안 검토
- 성남 마을 커뮤니티 사업 관련 기사 검토
- 심층 인터뷰 대상 마을 커뮤니티로부터 제공된 자료집 검토

●연구진행 회의

- 총 4회 연구진행 회의를 진행 함
- 연구의 초기에 마을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심층 인터뷰 질문지 구조화
-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연구의 보완점 논의를 운영하며 심층 인터뷰의 질문 추가 작업
- 심층 인터뷰를 모두 마친 후 연구 보고서 내용 관련 회의로 운영하였으며 종합 토론회 방향 기획
-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음

<표 5 : 2018 마을심층연구 연구진행회의 일정과 내용>

일정		참석자	내용
1	7/20	민경은, 김유진	- 질문 구조화
2	7/23	민경은, 김유진, 이수철, 방주영	- 연구 범위 및 내용 협의 - 단체 선정 및 심층 인터뷰 방식 논의 - 질문 구조화
3	8/8	민경은, 김유진, 이수철	- 인터뷰 진행 상황 공유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질문 추가 및 재구조화
4	10/5	민경은, 김유진	-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가 보완점 논의

●심층 면접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경험이 있고 지속적인 운영방안 및 자생성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신규 사업 단체를 제외한 마을커뮤니티 사업 2~3년차 이상의 단체를 선정함
- 총 5개 단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함
- 마을 커뮤니티 구성원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듣기위해 마을 커뮤니티 운영 단체의 대표자와 커뮤니티 활동 시민을 함께 인터뷰함
- 한 개의 단체는 대표만 인터뷰 하였으며, 네 개의 단체는 대표와 활동가 모두 인터뷰 진행
-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아래의 <표 6>과 같음

<표 6 : 2018 마을심층연구 면접 참여단체>

사업	지원연도	선정 대상(지역)
마을커뮤니티 지속사업	2013	- 단대동 마을센터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3)
	2016, 2017, 2018	-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2017, 2018	-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0)
	2017, 2018	- 해찬 양짓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
	2018, 2018	- 섬마을 공동체 (중원구 도촌로 7번지 13)
문화공간 조성사업	2016	-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성남시 수정시 태평3동)
	2017	- 섬마을 공동체 (중원구 도촌로 7번지 13)

●조사내용 분석

- 공모 사업 제안서 분석 및 심층 인터뷰에 따른 조사내용 정리
-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현황에 비춘 질적 연구

●종합토론회 라운드테이블

- 마을 커뮤니티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회로 마을커뮤니티 사업의 중장기적 사업 구조 및 전략을 마련

Ⅱ. 조사 설계

Ⅱ-1. 개요

Ⅱ-2. 질문지 설계

Ⅱ-3. 질문지 검토

II. 조사 설계

II-1. 개요

○ 질적 방법론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은 각 마을, 각 단체의 특성,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사람과 집단의 일은 숫자로 가둘 수 없는 ‘우연성’을 드러내고 있어 대화를 나누고 의미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론을 취함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사건들, 현장의 복잡다단함, 돌연한 전개, 세부적인 우여곡절을 다루기 위함으로 질문지에 성과 이외에 마을 사업을 화는 과정에 경험한 변화의 지점, 인력 문제와 해결방법 외 향후 10년 후의 상상의 항목을 만들어 단체의 대표,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눔

○ F.G.I(focus group interview)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토론을 함으로써 각자의 입장에서 마을 커뮤니티 사업 현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경험을 나누는 정성적 조사 방법 취함
- 단체들이 사업하고 있는 현장 또한 관찰하기 위해 단체를 모두 모은 것이 아닌 단체 별 F.G.I로 진행하였고, 각 단체마다 3시간가량 진행함
- 응답자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 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의 시간과 질문지의 맥락에 따라 대화와 토론으로 운영했으며 이 때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

○ 종합토론

- 각 단체별로 운영한 F.G.I(focus group interview)의 확장 된 형태로 5개의 단체 대표와 실무자가 모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 토론함
-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향후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발전적인 전략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는 마을 커뮤니티 인력의 업무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방안과 마을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종합토론은 향후 10년 후 성남의 마을 커뮤니티를 함께 상상하며 지원의 조건과 지역의 조건을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II-2. 질문지 설계

○ 질문지 설계 및 내용

- 7월 23일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착수토론회 준비를 위해 7월 20일 연구 자문 김유진과 연구 주제 및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 내용 자문 실시함
- F.G.I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담자와의 관계형성의 단계로 마을 커뮤니티 사업 이전과 이후의 마을에 대한 인상과 생각을 묻는 카드놀이 설계함. 카드에 나온 키워드를 기반으로 마을 사업의 성과에 대한 대화를 나누도록 설계함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경험한 변화의 지점들과 사건에 주목하여 마을 커뮤니티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갈등의 양상, 극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함
- 지금은 성남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모색되는 중으로 재단은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새 시정 공약에 대한 고민이 있음. 현재 마을 지원 사업이 독립적 기구로 설치될 것이라 예상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흡수될 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¹⁾
- 그러나 시정 및 재단의 예상되는 변화에 따라 연구 과제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 과제는 마을 자체의 활동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로 연구하기로 함
- 무엇보다 향후 10년 마을의 미래, 마을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교류 생성의 문제를 깊이 다룰 필요성을 논의함
- 향후 10년 마을의 미래라는 주제는 정책적으로 3년 일몰제, 마을 역량강화 사업 등과 관계가 있음. 대표의 부재가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마을을 보살피고 키우는 일을 할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질문이 생기게 됨
- 미래를 그려보며 지역의 공동체가 자생성을 갖고 활동하는데 지역의 조건에서, 재단 지원의 조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질문으로 만들고, 구체적으로 인력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질문 항목을 만듦
- 2년 이상 지원을 받아 온 단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하는 만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묻고, 다른 사업과의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 항목을 만듦
- 마을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 커뮤니티 사업과 사회복지 시설, 학교, 작은 도서관 등 과의 네트워크 사례와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온 취향 공동체 지원·육성사업인 사랑방문화클럽과의 협력 사례를 묻고,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함
- 질문 항목과 내용은 아래의 <표 7>과 같음

1) 부록에 첨부한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자문 보고서 참조

<표 7 : 2018 마을심층 연구 질문지>

항목	질문 내용
사업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단어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업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서 표현해주세요 ▶ 마을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업 중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업을 하는 중에 경험한 변화의 지점은 무엇이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중에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 성별, 연령 등에 따른 갈등이 있었는가? - 문제 생황의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마을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향후 10년의 미래를 그려보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지원의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인력의 문제는 무엇인가? -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가?
사업의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서 지원기관이 제안한 지침과 규율에서 개선해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폐기해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 마을사업에 마을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지역자원과 네트워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커뮤니티 사업과 지역의 자원(사회복지시설, 학교, 작은 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 사례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현장에서 마을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마을 커뮤니티 사업 간 교류 사례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어떤 지점에서 그 필요를 느꼈는가?
취향 공동체와 협력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과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만날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 질문지 검토 및 내용

- 예정되어 있는 5개의 마을 커뮤니티 인터뷰 중에 3개의 마을 커뮤니티 인터뷰를 마친 시점에서 마을 커뮤니티들이 다양한 마을 지원 사업을 여러 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있음을 조사함

- 8월 8일 3개의 마을 커뮤니티를 인터뷰를 마치고 김유진 연구원과 중간 점검 회의를 통해 인터뷰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질문지 항목을 검토함²⁾
- 마을 사업이 보편화되면서 마을 일이 사업화되는 경향성을 엿볼 수 있어 사업 예산이 마을 내부에서 순환되는 규모와 외부 강사 비용 사용규모를 파악할 필요를 검토함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마을 커뮤니티의 성장, 인력의 성장은 곧 마을 내부에서의 자원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전체 마을 사업비 규모를 추가 검토하기로 함
- 특히, 사업비가 마을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갖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외부 인력에게 일회성으로 비용을 지급해 소진하지 않고 마을 안의 인력을 길러내 향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한 통찰이 있는지 확인을 요함
- 공공 지원 사업이 세금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주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영 조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대안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
- 마을 사업이 주민의 일상적 삶을 계도해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탈근대적인 삶과 일의 통합 형태로 전환하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합한 판단인지, 단지 여가와 휴식에 필요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코디네이터를 서비스하는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질문을 추가함
- 심층 인터뷰 추가 질문은 아래의 <표 8 >와 같음

<표 8 : 2018 마을심층 연구 추가 질문>

항목	질문 내용
마을 커뮤니티 사업비 규모	<p>▶ 2010년 마을 사업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p> <p>- 마을 내부에서 순환되는 규모와 외부 강사 비용 규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p>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	<p>▶ 단체가 지속가능한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p> <p>- 마을 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인가?</p> <p>- 지속가능한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가?</p>

2) 부록에 첨부한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자문 보고서-2> 참조

Ⅲ. F.G.I 분석

Ⅲ-1. 조사대상 개요

Ⅲ-2. 분석 내용

Ⅱ-3. 종합토론

Ⅲ. F.G.I 분석

Ⅲ-1. 조사대상 개요

○ 단체 현황

<표 9 : 2018 마을심층연구 면접 참여단체 현황>

단체	시작연도	단체 특징
단대동 마을센터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3)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 -2009년 자발적으로 결성된 주민조직은 2010년 논골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로 2011년 단대동 마을센터로 발전 -2012년부터는 논골 마을공동체 마을회의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협력기관, 주민이 참여하여 논골 의제 관련 의사결정을 함 -주민제안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2014년 2월 논골작은도서관 완공 -마을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일꾼을 성장, 지역 내 방과 후 교실과 연계 등 지속적인 순환구조 갖추 -주민자치회, 봉사활동, 마을가꾸기 활동, 각종 강좌, 논골 축제, 논골 달장 등을 운영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2016.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구 태평 3동 원도심 일반주택 지역 -독립적인 공간이 있으며, 대표자 자가소유의 주택 1층을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아 리모델링하여 활용 -문화예술교육과 전시기획, 청년모임, 마을 문화예술사업, 지역대학과의 연계사업 추진 -비정기 회의 운영 -대표자에 의한 프로젝트별 진행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	20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구 위례동 신도시 단지 상가에 위치 -영어 교육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 일부를 작은 도서관을 구성하여 활용 -작은 도서관, 동호회 공간 지원, 마을신문, 팟캐스트, 유튜브 활용 마을 미디어 활동 -운영위원회와 대표자 중심의 의사결정 -청소년 기자단, 고전 인문학 모임, 가로새로 대학, 재능기부 동아리 등이 근간을 이뤄 마을 활동 진행

<p>해찬 양짓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p>	<p>2017.4</p>	<p>-수정구 양지동 원도심에 위치 -자체공간은 아니나 주민자치센터 2층을 활용하고 자체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민발굴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지역봉사, 마을 축제를 추진 -정기총회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단체와 네트워크하여 마을 활동 진행</p>
<p>섬마을 공동체 (중원구 도촌로 7번지 13)</p>	<p>2009</p>	<p>-중원구 도촌동 신도심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지역에 위치 -독립적인 공간 <마을놀이터 시작>이 있으며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아 리모델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촌동 양상블 오케스트라 등 운영 -정기, 비정기 회의 운영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 중심의 의사결정 -마을학교 섬마을 공동체, (주)섬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일반 구성원과 네트워크</p>

1) 단대동 마을센터(논골)

●단대동 마을센터(논골, 2013년 지원)

- 2009년 단대동지역아동센터에서 오전에 엄마들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자녀들이 마을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돕고,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주자고 의기투합한 자발적 주민모임 시작
- 2009년 생겨난 엄마들의 자발적 주민에 아빠들의 모임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같은 해에 정기회의 시스템을 갖추어 발전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0년 논골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생김
- 2010년 주민들이 참여하는 ‘논골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마을 내부의 역량으로 마을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자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이웃의 얼굴부터 확인하자는 뜻에서 ‘골목길 마을학교’를 기획함
- ‘골목길 마을 학교’가 당장은 자체 행사를 크게 벌일 형편이 못 되어 다른 단체와 연계를 꾀했고 한 단체가 예산보다 비용을 적게 들여 축제를 진행한 상황에서 남은 비용을 활용해 마을 축제를 옴. 그것이 바로 제 1회 논골 축제
- 제 1회 논골 축제를 통해 참여자들도 기획자들도 논골 사람들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생활에 활력이 더해지면서 마을살이가

즐거워짐

- 논골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토대로 2011년 단대동 마을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2년부터는 논골 마을 공동체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음
-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 외부와 협치를 이뤄내는 힘의 근간이 정례화 되어 있는 마을 회의와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 함

●단대동 마을센터 주요 활동

-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어 2013년 성남 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라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응모해 2,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음
-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3년 일몰제로 진행되었으므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성남문화재단의 마을 커뮤니티 사업은 2013년도 1년에 그침
- 논골 사람들의 마을 활동의 중요성을 마을 안에서 크게 실감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 될 만한 공간의 필요를 갖게 되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성남시 측에 커뮤니티 센터 설립 지원을 요청함
- 시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도서관 형태를 결정한 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함
- 성공적으로 주민 서명운동을 이끌어내며 2014년 3월에 논골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는 성과를 이루며 논골의 마을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크 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하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삶을 기획하고 마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논골 작은 도서관의 주요활동

- 논골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전 세대에 걸쳐있으며 성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개인 및 기관을 서로 연결하며 논골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더욱 든든하게 다지고 있음
-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논골 작은도서관을 통해 양성된 인적 자원은 성남시의 평생학습 현장, 학교 방과후 학습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커피 바리스타 양성과정, 독서심리상담 2급 과정 등의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수료한 주민들이 강사로 배출되어 평생학습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음
- 논골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전 세대에 걸쳐져 있고, 성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 세대가 모이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태평3동, 2016~2018년 지원)

- 성남 원도심의 장소성에 주목한 김은영 대표와 이돈순 작가 부부가 태평 3동에 작가들과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운영 시작
- 2016년 9월 성남문화재단의 공간조성지원사업을 받아 개소한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 예술인 단체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의 주요활동

- 2016년 6월 성남문화재단 마을공간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오픈 쿡 주방, 마을카페, 전시 공간 구성
- 2016년 9월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사업 <성남 미술은행 작품전>, <이야기 + 커피 + 음악, 홈바리스타 강좌>, <태평동 천 개의 마을이야기지도>를 시작
- 2017년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폰으로 본 세상_태평동 말하는 지도>를 진행
-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태평동 에코밸리 커튼_꿈꾸는 계곡 100개의 장막>을 운영하며 주민들 그리고 태평 초등학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이 사업은 2017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기획상 수상
- 2017년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사업으로 <청년 물반디> 사업 운영
-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태평동 에코밸리 커튼_꿈꾸는 계곡 100개의 장막>을 2017년도에 이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보다 규모를 확장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태평 3동과 태평 4동을 넘나들며 마을의 경계를 유연하게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2018년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사업 <청년 물반디>은 2017년에 이어 2년차이며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사업 3년차임

3)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수정구 위례동, 2017~2018년 지원)

- 2012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개관한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은 정소영 관장이 갖고 있던 개인 소장용 영어 동화 2천여 권으로 시작한 사립 작은 도서관임. 동화책을 활용한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학부모들과 소통한 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 마을사업 중 하나로 부모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아빠와 함께하는 골목탐험>을 2년 간 운영하며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
-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으로 2017년 1월 이전하여 신도심의 상가에 새롭게 옴

- 5~1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논술지도 학원 내 공간을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 무료로 도서를 대여하고 있음
- '세계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을 지향하며, 지금은 영어 동화책이 대다수이나 여러 나라의 동화책을 구비할 예정임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의 주요활동

- 2017년 2월 <위례 어린이 기자단> 1기를 모집하여 위례 신도시 마을을 취재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2기를, 2018년 3월에는 3기 기자단 활동을 진행
- <위례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은 마을 전체를 학교로 삼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것을 지향하며 친구와 이웃을 만나는 문화 활동으로 구성
- 어린이 기자단이 활동한 내용은 어린이 문화교양지 <위례공감>으로 발행되고 있음
- <배워보자! 위례 마을학교>라는 테마로 마을 거점 재능기부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엄마들이 모여 학습고민을 엄마표로 풀어보는 수학연구동아리, 여행영어강좌 외에 프랑스자수 동아리도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음
- 가로새로 시민대학 강의를 운영하며 도자기핸드페인팅, 꽃과 식물로 꾸미는 인테리어, 마이마이 스토리 글쓰기 강좌도 운영 중에 있음

4) 해찬 양짓말

●해찬 양짓말 (수정구 양지동, 2017~2018년 지원)

- 수정구 9개의 봉사단체가 제 각각 김장 봉사, 아이,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다
- 가 거리페스티벌을 계기로 기획되어 커뮤니티로 구성되었고 2015년부터 '햇찬 양짓말 거리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음
- 그 성과를 바탕으로 따복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양지동 전체를 아우르는 '햇찬 양짓말 공동체'가 조직됨
- 양지동 주민자치센터 내 2층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공간 마련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해찬 양짓말의 주요 활동

- 2017년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정원사 교육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경기도 따복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을 진행하여 마을 의제 수립
-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2017년 <햇찬 양짓말의 아름다운 동행> 사업을 운영함
- 2018년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 2년차이며 <자연을 벗삼아 정

을 나누는 양짓말> 사업을 운영함

- 2015년부터 ‘햇찬 양짓말 거리 페스티벌’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진행됨
- 2017년에는 <그림이 있는 마을 신문>으로 어린이들과 마을신문 제작을 하였으며 2018년에는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 신문>으로 마을 청소년기자단을 선출하여 마을탐방, 취재,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 신문기사문을 작성, 인쇄하여 마을주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마을 신문> 만들기를 진행함

5) 섬마을 공동체

●섬마을 공동체 (중원구 도촌동, 2017~2018년 지원)

- 2009년 마을 커뮤니티로 만들어진 ‘섬말 사랑방’과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주관으로 형성된 섬말학습공동체로 시작
- ‘섬말학습공동체’가 마을학교·마을커뮤니티 ‘섬마을 공동체’로 발전되어 도촌동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생태·문화마을 공동체로 성장
- 2017년 성남문화재단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공간 ‘마을놀이터 시작’을 개소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실, 밴드 연습 및 공연 공간, 마을 공유부엌, 공방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됨

●섬마을 공동체의 주요활동

- 2017년 성남문화재단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공간 ‘마을놀이터 시작’을 개소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실, 밴드 연습 및 공연 공간, 마을 공유부엌, 공방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됨
- 2017년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 <마을가족놀이터...風始人作(풍시인작)> 프로그램 운영함. 이 프로그램은 마을의 구성원인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악기 합주와 음식 나눔을 통해 마을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 기획 되어 마을밴드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함
- 2018년 마을 커뮤니티 사업 <마을가족놀이터...風始人作(풍시인작)> 에서는 노리터마을밴드의 본격적 활동을 진행하고 2017년에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도촌마을앙상블을 마을청소년오케스트라와 연계한 마을오케스트라로의 성장을 도모, 3년차인 2019년에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마을가족 오케스트라를 꿈꾸고 있음

Ⅲ-2. 분석 내용

Ⅲ-2-1. 분석 개요

○ 주요 분석 주제

<표 10 : 2018 마을심층 연구 조사대상 분석을 위한 질문 분류>

항목	질문 내용
사업의 성과	▶ 마을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업 중 변화의 지점	▶ 마을 사업을 하는 중에 경험한 변화의 지점은 무엇이었는가? - 사업 중에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 성별, 연령 등에 따른 갈등이 있었는가? - 문제 생황의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마을의 미래	▶ 마을의 향후 10년의 미래를 그려보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지역의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지원의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인력의 문제는 무엇인가? -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가?
사업의 개선점	▶ 본 사업에서 지원기관이 제안한 지침과 규율에서 개선해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폐기해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본 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 마을사업에 마을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지역자원과 네트워크 사례	▶ 마을 커뮤니티 사업과 지역의 자원(사회복지시설, 학교, 작은 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 사례가 있는가? - 마을 현장에서 마을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마을 커뮤니티 사업 간 교류 사례가 있는가? -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어떤 지점에서 그 필요를 느꼈는가?
취향 공동체와 협력사례	▶ <사랑방문화클럽>과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만날 수 있을까? - 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마을 커뮤니티 사업비 규모	▶ 2010년 마을 사업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마을 내부에서 순환되는 규모와 외부 강사 비용 규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	▶ 단체가 지속가능한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 마을 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인가? - 지속가능한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가?

- 위의 질문 분류에 따라 마을 공동체들과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각 마을사업의 시작점이 다르고 마을의 사정과 장단점이 있음을 파악함
- 마을 커뮤니티의 성과사례를 통해 강점을 분석하고 기술함
-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염두 하여 위의 <표 10> 중에 박스로 표시한 부분에 주목하여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경험, 공동체 변화의 지점, 의사소통구조, 역량강화 과정을 주요하게 분석기술 함
-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며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인력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지역과 지원의 관점에서 단체들의 바람에 대해 인터뷰 한 것을 분석하고 제안한 방향을 기술함
- 주요하게 분석 기술하는 내용은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성남 마을 공동체의 주요 과제로 보고, 종합토론의 논의 주제로 정하여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자료로 활용함

Ⅲ-2-2. 분석 내용

1) 단대동 마을센터(논골, 2013년 지원)

<그림 2 : 단대동 논골 마을의 활동>



●자발적으로 만든 축제로 공동의 기억이 원동력

- 2009년 단대동지역아동센터에서 오전에 엄마들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자녀들이 마을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돕고,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주자고 의기투합한 자발적 주민모임 시작되고 엄마들의 자발적 주민에 아빠들의 모임이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골목길 마을학교에 부모들의 모임이 활성화됨
- 2002년 논골 축제를 열며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와 봉사를 독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으며 논골의 의사결정구조와 정례 회의는 마을 활동의 활력을 증진시켜나가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적극 참고할 만 함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유 공간 만들기

-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이자 마을 사람들의 공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성남시 측에 커뮤니티 센터 설립 지원을 요청했음. 시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결정하고,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함
- 위탁운영을 해줄 법인을 찾고, 사업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2년여에 걸친 과정은 논골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나가는 지난하면서도 단단해지는 과정이었음
- 2014년에 건립된 논골 도서관에 2016년 논골마을 카페를 오픈하였고, 현재 논골마을 카페는 장애청소년들이 운영하도록 위탁하여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마을 공동체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와 성장

- 2009년 생겨난 엄마들의 자발적 주민에 아빠들의 모임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같은 해에 정기회의 시스템을 갖추어 발전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0년 논골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생김
- 2개의 밴드를 운영하는데 논골 주민 4천명이 들어와서 마을 소식을 모두 접하고 있음.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참여단위가 커지면서 마을행사를 알리고 설명회를 열어서 소통의 과정을 만드는데 2-3주 정도의 시간을 공들이며, 행사 준비는 1주일 힘을 내어 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됨
- 마을 회의가 정례화 되었으며 주민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마을을 위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감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마을이 주체적으로 선별하여 설계

- 여러 지원 사업을 경험한 단대동(논골)의 마을 공동체 주체들은 과정과 결과

를 함께 그리며 마을 사업에 적절한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함

-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5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마을살이의 재미와 의미가 가장 중요한 공동 목표가 되어 무리한 지원은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마을 인력의 성장 프로그램과 확장되는 지역 네트워크

- 논골 도서관 설립 이후, 마을 사람들 역량강화를 실행하고 있음. 독서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을 거치면서 12명의 마을 강사, 마을 활동가들이 성장함
- 2015년 마을 문화사업을 받았을 때 주민에게 공모사업을 내어 누구라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5팀의 제안자를 뽑은 경험이 있는데, 그 때 1등한 고등학생들이 마을 내 재원을 조사했고, 인터뷰하고 책을 발간한 일이 마을 내 재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10년 전에 모인 아빠들의 모임은 마을 행사를 돕는 역할만이 아닌 현재 드론, 3D 프린터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만나 학교장과 협의 후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한 당구 교실,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하였고 바리스타 교실은 학교 내에 카페를 운영하며 학교 밖 봉사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음
-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생기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을 마을 과제로 함께 나누고 있음
- 당장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은 마련할 수 없어 논골 도서관 옥상에서 목공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마을학교의 일환으로 <학교가 마을로, 마을이 학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간 마을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부모들이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의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마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 공간 확대 필요 제안

- 논골 도서관 근처에 유휴 공간이 방치되어 있어 지난 2년 간 운영 주체가 되어 마을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성남문화재단 마을 공간 지원사업에도 신청했으나 반려 됨. 공적 공간에 대한 규율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논골 마을의 활동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됨. 한 예로 청소년 목공 동아리의 경우 옥상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목공 작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임. 최소한의 환경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작업에 맞는 공간이 아니므로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한 현실임
- 태평동에 위치한 마을 창작소의 사례를 들어 공적 공간에 대한 규율을 만드는 것만이 아닌 공공 공간이 공공성을 담보하며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재단의 역할을 요구하였고, 공공 공간의 활성화에 따른 전문 코디네이터

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은 종합토론의 주제로 선정 함

2)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태평3동, 2016~2018년 지원)

<그림 3 : 2018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활동>



●마을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기능

- 성남 원도심의 장소성에 주목한 김은영 대표와 이돈순 작가 부부가 태평 3동에 작가들과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운영 시작하며 2016년 9월 성남문화재단의 공간조성지원사업을 받아 개소한 예술 공간임
- 공간 설립의 목적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 만큼 문화예술사업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양하고 있음

●거리두기와 관계 맺기의 태도

- 예술인으로서의 틀로만 지역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틀에만 갇히는 것이 아닌 태도를 유지하며 사안을 관찰하고 사유하고자 함. 따라서 거리두기와 관계 맺기에 대해 고민하고 주력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중임
- 마을 만들기에 주도적인 태평 3동의 동장님과의 만남으로 김은영 대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음. 자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의 마을 공동체에 다른 의견과 질문을 공유하고 문화 다양성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자 함
- 성남 마을 커뮤니티 사업으로 <청년 물반디> 사업을 2년 째 운영하면서 적절한 개입을 위해 청년들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과정을 가짐

- 마을의 공공 공간이며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 골목을 점유하는 행위를 통해 마을도 빛어졌지만 예술단체와 마을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계기 마련함

●지역 네트워크 중에 형성되는 취향의 공동체

- 성남 도시 형성 과정에 대한 리서치와 도시재생, 문화재생에 대한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의 관심은 지역 내 대학인 가천대학과 연계가 되고, 작년부터 2년 차로 진행중인 마을커뮤니티 사업 <청년 물반디>에는 가천대학의 건축과 학생 2명이 참여하며 취향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음

●마을 공동체 매개자로서의 주민 도슨트 발견 및 양성

-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가 위치하고 있는 태평3동만이 아닌 태평4동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했으나 마찰이 많았다고 함.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생기는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주민 관계 내에서 소통과 해결이 되는 경험을 통해 흥반장 같은 역할의 주민 발굴과 네트워크의 중요성 인지하고 마을공동체 매개자 양성과정으로 ‘주민 도슨트 양성 과정’을 기획하고 있음
- ‘주민 도슨트 양성 과정’은 마을 주민들의 마을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주민들과 작가들의 매개를 주도하고 있는 김은영 대표와 함께 기획해나가며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을 결성하고 마을 도슨트 양성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운영을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 도슨트는 마을 공동체의 소통 중심이고 사업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될 수는 없어 사업을 운영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함께 하는 기획으로 동료 기획자와 활동가의 배출 및 성장 기대

-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가 위치한 태평동에 청년 활동이 없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한 청년 물반디 활동은 이후 동료 기획자와 활동가의 발굴과 성장을 기대하는 바람에서 시작됨
- 올해 이년 째 진행되고 있는 청년 물반디 활동은 2017년 외부 강사의 중간 탈퇴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좌절을 겪은 바가 있음
- 2018년 청년 물반디 사업은 동네 청년의 참여와 인근의 대학인 가천대 건축학과 학생의 참여로 활기를 띄고 있으나 사업 초기에 기획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 의해 변하는 과정을 맞이하며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는 참여자들과 함께 해나가는 기획에 대한 필요를 여실히 느끼고 있고 변화한 과정을 실행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청년 물반디를 이끄는 멘토 강사는 외부 작가로 지역 내의 활동 주체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남아있는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임. 올해 운영되는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 마을 활동을 해나갈 청년을 찾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함
- 김은영 대표가 계획 중엔 주민 도슨트 양성, 청년 기획자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3)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수정구 위례동, 2017~2018년 지원)

<그림 4 : 2018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활동>



- 가족과 이웃의 삶을 보고 느끼는 활동으로 지지하는 관계 형성
 - 2012년 9월 정소영 관장이 서울 송파구에서 개관한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이 2017년 1월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으로 이전하며 송파구에서 부모 커뮤니티 사업을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마을 사람들과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음
 - 현재 위례지구는 행정구역으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가 속해 있어서 송파구에서 활동하던 정소영 관장이 보는 위례동이라는 행정구역은 마을로 통합되어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문화에 대해 다층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 아빠의 직장을 탐방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골목탐험>프로그램 운영하며 가족 모임과 자녀들의 학습을 겸해 다양한 삶의 현장을 만났던 경험을 위례동으로 도서관을 이전해 와서는 기자단 활동으로 확장하여 책으로 발간하고 있고, 이 책은 송파구와 성남시 위례동에 모두 배포하고 공유되고 있음
 - <아빠와 함께하는 골목탐험>은 강연을 이끌어주는 아빠에게 강연비가 지급되었고 그 날의 강연비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동네잔치 문화가 만들어진 경험 있음

- 가족 프로그램은 자녀 진로체험의 목적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맺음을 통해 삶의 안전망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이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치라고 보고 있음

● 삶을 파편화시키는 도시에서 공공 공간의 가치와 의미 발굴

- 정소영 관장은 위례동이 동 단위에서 갖출 수 있는 조건의 한계로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환경을 파악하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임에도 큰 공원 또는 광장이 없이 아파트단지 내 조경시설과 소비를 통해서만 모일 수 있는 상가만 있는 점을 주목함
- 지난 송파구에서의 활동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육아를 한 경험자산이 있었기에 모두가 낯선 도시인 성남 위례동에 왔을 때 두려움 없이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함
- 사람들이 관계할 수 있는 공간, 안정적인 모임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절을 불러 일으키는 아파트 문화에 균열을 내는 도서관 활동으로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연계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신도심형 아파트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만남을 매개하고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위례 마을 미디어 활동

- 2017년 2월 <위례 어린이 기자단> 1기를 모집하여 위례 신도시 마을을 취재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2기를, 2018년 3월에는 3기 기자단 활동을 진행하고 <위례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은 마을 전체를 학교로 삼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것을 지향하며 친구와 이웃을 만나는 문화 활동으로 구성함
- 어린이 기자단이 활동한 내용은 어린이 문화교양지 <위례 공감>으로 발행되고 있음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기자단 활동 외에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미디어 활동에 중점을 두고 마을 미디어 활동으로 팟캐스트 녹음, 유튜브를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음
- <배워보자! 위례 마을학교>라는 테마로 마을 거점 재능기부수업과 <가로새로 시민대학> 강의를 운영하며 이 곳에서 발생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매체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연결하여 활동 홍보, 참여자들의 회고와 만남이 연결되도록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마을 주민들의 문턱을 낮게 열어놓았으나 각 커뮤니티가 동아리 활동의 특성을 띄고 있고 정소영 대표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주체의 발견이 필요해 보임

●공공성의 실험이 마을 공동체의 확신이 되는 순간

- 책을 발간하고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 등의 미디어 활동은 마을과 가족 내에서 공유되며 주부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도구로 모임의 공공성을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4) 해찬 양짓말 (수정구 양지동, 2017~2018년 지원)

<그림 5 : 2018 해찬 양짓말 활동>



●작은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길 만들기

- 2017년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정원사 교육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경기도 따복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을 진행하여 마을 의제 수립
-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2017년 <햇찬 양짓말의 아름다운 동행>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8년 <자연을 벗삼아 정을 나누는 양짓말> 사업을 운영함
- 마을계획 수립을 과정은 찾아가는 설문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기위해 찾아가는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마을 주민이 마을 공동체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함
- 주민자치위원회의 9개의 분과장이 참여하여 분과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던 기존 활동가들 간의 유대가 끈끈한 것이 마을 커뮤니티 활동의 미래를 확장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는 자각으로 기존의 구성원들만의 모임이 아닌 확대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

- 마을계획수립 전, 마을 정원 프로그램에는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면, 수립과정 후에는 마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플랫폼이 되는 발전적인 경험을 하면서 함께하는 노동으로 마을에 애정을 갖고 의제를 논의 하는 과정에 이름

●마을 주체 간 소통을 위한 워크숍 구성

- 마을 리더 교육을 받아왔던 경험자들의 기획으로 마을 주체 간 소통을 위한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실행함
- 마을 주체 간 통합을 위해 외부 소통 강사를 섭외하여 조력자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양지동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예술마을 조성과 마을 커뮤니티의 변화 상상

- 해찬 양짓말은 남한산성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남한산성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예술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성남 마을 커뮤니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드닝 또한 마을의 환경을 조성하며 예술마을 조성을 해나가기 위한 전초과정임
- 가드닝 사업을 통해 마을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행정구역별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인근 동네인 은행동에도 확장하여 진행하고자 함
-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경제 모델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 기업 양성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며 이로써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그리고 있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역사인문학 강사, 마을 숲 해설사, 정원사 등의 직업을 창출하는 마을학교는 사회적 기업 모델과 공공 근로와 같은 마을 봉사 모델로 구상중이며 모델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연구 중임

●마을에 맞는 교육, 찾아가는 교육 추진 필요

- 성남시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교육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청, 파복 등에서 비슷한 마을 리더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마을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정에 맞는 핵심교육의 필요를 갖고 있음
- 해찬 양짓말에는 작은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어서 작은 단체들의 단체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임. 해찬 양짓말이 마을 커뮤니티의 플랫폼이 되고 작은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으로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라고 있음
- 코디네이터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획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나, 많은 수의 주민이 코디네이터로

양성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음

- 마을 활동가의 층위와 활동양식은 저마다 다르기에 활동가 교육을 통해 한 향의 활동가를 길러내는 교육은 지양해야 하며 조력을 원하는 마을과 스스로 기획하기를 원하는 마을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추진 방안을 요구함

●주민이 진행하기 수월한 행정 체계의 유지가 관건

- 성남시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과 비교하여 성남문화재단의 마을 커뮤니티 사업은 간단명료하며 주민이 진행하기 수월한 행정 체계를 갖고 있음
- 전문 경영인을 요하는 정산 과정이 아닌 간략한 정산체계를 구축한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보조강사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여 마을 인적 자원이 활동하고 성장하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음
- 활동가가 예우를 받으며 활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사업의 장점이 유지되고 지원 및 행정 체계를 발전적으로 설계할 것을 요구함

●3년 일몰제의 의미 지원 종료 이후의 성남문화재단 역할 제안

- 해찬 양짓말의 전인옥 사무국장은 마을마다 커뮤니티 활동의 시작이 다르므로 성남문화재단이 제안한 ‘사업도입기-사업확대기-사업성숙기’ 3단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마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커뮤니티의 일원들이 공동의 경험을 하는 촉진제이자 실험기반으로 3년 일몰제는 유의미하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직접지원사업 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마을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문화클럽을 지원하고 마을 커뮤니티의 사업에 소개 해주는 등 문화·예술에 관계된 자원과 장점을 갖추고 있음. 3년 일몰제를 종료한 마을 커뮤니티가 성남문화재단의 코디네이팅을 통해 예술가 그룹과의 연계 또는 신규 마을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로 되어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과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마을 커뮤니티들도 모색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으로 마을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꾀해볼 수 있음

●구체적이고 질 높은 네트워크 추구

- 마을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기획서 작성, 강사 섭외, 마을 내 관계의 문제 등 실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고, 시간을 들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호교류의 장을 열어 실행 중
- 성남 마을넷에서 수정구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네트워크 방안으로 멘토 마을 만들기가 발의 되었으나, 멘토-멘티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 아니라 판단하여 이웃마을 만들기를 제안하고 신규단체의 기획을 돕고, 강사 간 교류 등 상호교류를 실행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 질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억지로 양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함
 - 3년 일몰제로 마을 커뮤니티 사업 지원이 종료된 마을 커뮤니티들을 진단 하여 비슷한 상황의 신규 마을 커뮤니티와 이웃 커뮤니티로 네트워크 하도록 촉진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 됨

●문화예술 콘텐츠로 가치를 높이는 문화재단의 특화된 사업 추진 필요

- 전국적으로 기획자 양성 과정을 추진하는 등 마을 활동가와 주민들의 기획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높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성남문화재단이 마을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큰 틀의 예술 기획을 하여 마을 커뮤니티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이렇게 할 때에 마을 커뮤니티 내의 활동가들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유한 전문 기획자와 협력하여 전문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질 높은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함

5) 섬마을 공동체 (중원구 도촌동, 2017~2018년 지원)

<그림 6 : 2018 섬마을 공동체 활동>



●신도심에서 10여 년의 공동체 활동으로 빛은 놀이터 ‘시작’

- 2009년 마을 커뮤니티로 만들어진 ‘섬말 사랑방’과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주관으로 형성된 섬말학습공동체로 시작하여 마을학교·마을커뮤니티 ‘섬마을 공동체’로 발전되어 도촌동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생태·문화마을 공동체로 성장해 옴
- 오랜 활동 공간에서 현재의 공간으로 이전을 하여 2017년 성남문화재단 문화 공간 조성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 공간 ‘마을놀이터 시작’을 개소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실, 밴드 연습 및 공연 공간, 마을 공유 부엌, 공방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됨
- 아이들을 키워 온 동네를 떠나지 않기 위해 새로 만든 공간인 ‘마을놀이터 시작’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생태놀이를 해왔던 도시 속 자연 공간인지라 삶의 흔적과 이야기를 재 발굴하였고 지난 활동 중에 오케스트라 음악활동과 심리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였고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배치 함
- 공간이 확장 되면서 만나는 지역도 확장되었으나 공간을 이끄는 마을 일꾼들의 부담은 커짐에 따라 새로운 수익구조를 구상 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중

- 오랜 시간 협력을 해 온 강사들과 마을 커뮤니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아이템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려는 준비를 해 오고 있었음
- 마을 학교로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교육 사업을 중점으로 한 학습 공간 운영과 공간임대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갈등 조정 센터와 나 찾기 프로그램으로 회복적인 소통 시도

- 마을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 전문가가 투입 되는 것이 좋다는 지난 경험으로 양재연 대표는 갈등 조정 관련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갈등 조정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음
-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오랜 시간 해온 양재연 대표는 학교 내부에서의 학생 간 갈등이 표면적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그 갈등이 마을 안에서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경험하여 학교 갈등조정 센터 프로그램을 마을 갈등조정 프로그램으로 후속작업을 실행함
- 성미산 마을과 재미난 마을에 방문했을 때 타로 카드와 같은 자기발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도촌동에서도 나 찾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명리학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 중

●시간성에 주목하는 활동과 활동 평가

-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대로 마을 활동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마을

을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저마다의 진로를 찾아 성장하고 있음

- 마을 커뮤니티의 문화 활동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변화하고 이어서 확장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뿐 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들어온 시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새로움에 대한 다른 시선과 생산되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

- 2017년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 <마을가족놀이터...風始人作(풍시인작)> 프로그램 운영함. 이 프로그램은 마을의 구성원인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악기 합주와 음식 나눔을 통해 마을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 기획 되어 마을밴드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함
- 2018년 마을 커뮤니티 사업 <마을가족놀이터...風始人作(풍시인작)> 에서는 놀이터 마을밴드의 본격적 활동을 진행하고 2017년에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도촌마을앙상블을 마을청소년오케스트라와 연계한 마을오케스트라로의 성장을 도모, 3년차인 2019년에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마을가족 오케스트라를 꿈꾸고 있음
- 마을 커뮤니티 사업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2년 차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느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매 년 오케스트라 활동 내부는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가 생산되고 있음
- 매 번 프로그램이 새롭게 기획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활동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움과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요구됨

●마을 리서치 프로젝트 설계 및 지원 필요

- 학습마을 공동체를 진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문화숨이라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3년 째 마을 리서치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음
- 기획집단이 생각해 온 마을과 리서치 결과가 달라서 놀라웠던 경험이 있어서 마을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마을과 주민들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매번 리서치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의 <보이는 마을> 사업이 리서치 프로젝트로 좋은 예인데, 1년간 마을을 리서치하며 발견한 사안에 따라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해보도록 하는 것은 마을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태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일 것으로 판단 됨

Ⅲ-2-3. 종합토론

○ 개요

- 지나간 시간을 폐기하는 것 아닌 역사화 하는 행위로 자리로 마을 공동체 활동과 연구에 동참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주체들이 희망을 나누며 향후 마련 되어야 할 정책의 단초를 마련하는 종합토론을 기획함
- ‘미래’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향후 10년을 함께 상상하며 시간의 공통성을 획득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유의 자리로 종합토론 진행함
- 각 단체별로 운영한 F.G.I(focus group interview)의 확장 된 형태로 5개의 단체 대표와 실무자가 모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 토론함

<표 11 : 2018 마을심층 연구 조사대상 종합토론 개요>

구분	내용
주제	▶ 10년 후 마을 커뮤니티를 상상하며 성남 마을커뮤니티의 현재와 미래 연결하기
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 오후 2-5시
장소	▶ 성남문화재단
종합토론 참석자	▶ 책임연구자 - 민경은, 박지훈 ▶ 공동연구자 - 김유진, 방주영, 이수철 ▶ 연구 참여 단체 - 논골 도서관 김경옥 -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김은영 - 섬마을 공동체 양재연 - 해찬 양짓말 전인옥

-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향후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발전적인 전략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는 마을 커뮤니티 인력의 업무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방안과 마을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성남 문화재단의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원관련 의견 나눔
- 종합토론은 향후 10년 후 성남의 마을 커뮤니티를 함께 상상하며 지원의 조건과 지역의 조건을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종합토론 내용

<표 12 : 2018 마을심층 연구 종합토론 논의 내용 요약 >

논의 주제	논의 내용 요약
3년 일몰제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성장이 아닌 마을 현황에 따른 발전사항 아카이브 필요 ▶ 3년 일몰제 이후의 자원 정보 네트워크 방안
전문 코디네이터의 양성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가진 코디네이터와 협력의 필요성 ▶ 마을 창작소를 예로 상상한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만들기 사업과 차별화 되어 문화마을의 특색화 필요 ▶ 마을 커뮤니티, 커뮤니티 아트, 생활문화 지원의 다각화가 필요 ▶ 예술과 마을 커뮤니티 간의 연계 및 코디네이터 요구 ▶ 마을과 단체에 포커싱 된 교육 요구 ▶ 현장 기록 및 보고서 편찬

● 3년 일몰제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

- 또한 3년 일몰제의 지속과 확장을 요구하는 단체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예로 더욱 장기적인 지원을 요구함 3년 일몰제 이후에 자원과 정보의 네트워크로 또 다른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사업의 지속이 마을 커뮤니티 존재의 지속은 아니기에 3년 일몰제 이후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원 방안을 다각화 하길 요구함

● 전문 코디네이터의 양성과 활동

- 마을의 형태가 다양하고 마을 내부에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아직 발견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경우에 문화예술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성남문화재단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초창기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심층연구 참여 단체들은 지금은 전문 코디네이터가 적극 필요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직접 기획을 해야만 하는 기획자 양성 과정보다는 마을 인력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해주기를 바람
- 전문 코디네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시청, 재단, 파복 공동체 등에서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포커싱이 된 프로그램을 요구함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관련

- 전체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마을교육으로 현장에 맞춤형 심화 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을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마을 문화예술 교육 기획을 요구함
-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차별점이 크게 없게 느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마을문화예술에 대한 특화된 지원 사업 설계를 요구함
- 지난 성남문화재단은 1년에 한 번 씩 <사랑마루>를 편찬하여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기록해 왔는데, 현재는 기록편찬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활동 아카이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함

IV. 시사점 분석

○ 시사점

●성남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에 따른 질적 연구

- 성남문화재단이 꾸준히 진행해온 생활문화 관련 연구와 연동되어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어 마을 문화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지원해 오던 바이나, 각 마을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과 각 마을 공동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찾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해결법을 찾아보고자 질적 연구를 실행함
- 5개의 단체와 마을을 심층연구하면서 마을 커뮤니티의 출발과 성장이 상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과 필요, 문화예술을 실현하고 접점을 만들어내는 형태 또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함
- 성남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모색되는 중으로 성남문화재단은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새 시정 공약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마을 현장을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이 지속되는 한 질적연구 또한 지속되어야 함

●마을 커뮤니티의 내부 동력 증진 방안 모색

- 마을 커뮤니티의 자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향후 10년 마을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계획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지역 내 마을 커뮤니티의 의사결정구조와 인력양성구조를 구축해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발휘될 것이라고 진단 함
- 지난 10년 간 마을 단위의 활동을 성장시키며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해나간 사례부터 현재 3년 일몰제로 성남 마을 커뮤니티 사업을 운영 중인 단체까지 다양한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마을 커뮤니티 내부 동력의 성장을 운영 단계에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
- 이는 아래에 기술되는 마을 커뮤니티 공모 지원 사업의 다각화, 마을 커뮤니티 현황에 따른 교육,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 관련이 됨

●마을 커뮤니티 공모 지원 사업의 명료한 목적 공유 필요

- 현재 커뮤니티 아트,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이 행정적인 이유에서 인위적인 구분을 통해 별도 지원되고 있는데 대체로 마을은 마을 스스로 문화예술을 활용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싶어 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마을 커뮤니티 공모 사업의 목적이 명료화 되는 것은 전문 코디네이터의 활용과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내용적으로 중요한 연결지점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소비만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인문·사회적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임

- 마을 커뮤니티를 발굴하여 마을 커뮤니티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향이었다면, 리서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실행연구로 운영되어 마을 문화커뮤니티 사업의 소스와 기반이 되도록 하는 연구로 설계되는 것이 현재 성남에서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여겨짐

●3년 일몰제와 관련한 마을 커뮤니티 공모 지원 사업의 다각화

- 공모 지원 사업은 지역 주체들의 협력을 지원하기보다 경쟁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서로의 역량에 기대어 실질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장치를 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주체가 처해 있는 마을 커뮤니티의 환경과 성장의 속도에 딱히 맞춰져 있지 않은 현실임
- 성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사업도입기-사업확대기-사업성숙기로 단계를 설정하여 마을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문화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변화,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설계되어 있음
-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눠 주기 식의 지원으로 예산이 깎여 계획에 따른 실행을 할 수 없었고, 3년 일몰제로 정해져 있어 마을 공동체의 성장과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3년 일몰제로 진행하는 구조 안에서는 점차 확대되는 마을 공동체의 사업과 방향에 따라 예산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 단계적 성장이 아닌 마을 커뮤니티의 성장과 변화를 스스로 관찰하고 아카이빙하도록 촉진하는 방안도 요구되며 이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을 리서치 프로젝트 또는 실행연구 사업 등으로 지원 사업이 다각화 되었다면 마을 인력의 발견과 의사결정구조 실험 등으로 마을 커뮤니티의 문화적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임

●마을 커뮤니티 현황에 따른 맞춤 교육

- 전문 코디네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시청, 재단, 파복 공동체 등에서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포커싱이 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전체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마을교육으로 현장에 맞춤형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직접 기획을 해야만 하는 기획자 양성 과정보다는 마을 인력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해주기를 바라는 단체가 있어 재단이 적극 검토해볼 만 함
- 마을을 예술로 색다르게 감각,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인 기획을 하도록 촉진 하는 역할로서의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적극 검토할

만 하다고 여겨짐

●마을 커뮤니티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 방안 모색

- 성남문화재단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초창기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심층연구 참여 단체들은 지금은 전문 코디네이터가 적극 필요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관이 요구하는 행정 전문성, 공동체 활동의 존속을 위한 다양한 기획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을 다시 검토해볼 만 함
- 전문 코디네이터의 활동 예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태평동의 마을 창작소를 예로 레지던시 작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매개하여 마을 창작소의 존재 이유와 작가들의 활동을 지역 주민에게 해석해주는 역할, 작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 기획 등을 상상해볼 수 있음
- 성남문화재단이 마을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큰 틀의 예술 기획을 하여 마을 커뮤니티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이렇게 할 때에 마을 커뮤니티 내의 활동가들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유한 전문 기획자와 협력하여 전문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질 높은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함

●마을 커뮤니티의 자생을 위한 또 다른 지원, 네트워크

- ‘자생’이란 개념 자체가 관념적일 수 있으나, 사람의 문제는 곧 마을 자생 문제로 치환되고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마을 활동과 교류 네트워크는 대부분 운영 조직을 필요로 하는 현실임
- 마을을 보살피고 키우는 일을 할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남길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주민들의 자발성이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마을 커뮤니티사업의 운영 단체만이 아닌 성남문화재단에도 요구됨
- 사랑방문화클럽과 마을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고, 성남시 마을 만들기 사업 내에서는 마을 간 네트워크 사례가 이뤄지고 있어 성남문화재단의 마을 커뮤니티 사업 목적에 따른 네트워크가 기획되길 바램
- 지원사업 내에서의 네트워크 외에 마을 커뮤니티의 자생과 관련한 자원, 정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몇몇 마을 커뮤니티들은 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문화재단과 마을과의 네트워크 문화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 자원과 정보의 네트워크는 성남문화재단의 또 다른 지원이 될 수 있음
- 주민 자치가 이뤄지기 위해 실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과 협치를 진행하는 절차 및 지원 형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에 시간의 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성남 내 마을 커뮤니티가 연구 주체로 참여하길 바램

부록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자문 보고서 (1)’

7월 23일 착수토론회 / 성남문화재단 4층 회의실

작성자 : 김유진

- 7월 23일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착수토론회가 있었음. 착수토론회 준비를 위해 7월 20일 연구 책임 민경은과 연구 주제 및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 내용 자문을 실시하였음.
- 착수토론회에서 준비된 예상 질문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동감하는 편이었음. 준비 질문을 토대로 현재 성남 문화 정책의 토대 위에서 고려해야 할 점, 성남문화재단이 고민하는 마을 지원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토의함.
- 지금은 성남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모색되는 중으로 재단은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새 시정 공약에 대한 고민, 현재 마을 지원 사업이 독립적 기구로 설치될 것이라 예상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흡수될 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재단의 지원 역할의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시정 및 재단의 예상되는 변화에 따라 연구 과제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 과제는 마을 자체의 활동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로 함. 무엇보다 향후 10년 마을의 미래, 마을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교류 생성의 문제를 깊이 다룰 필요성을 논의함.
- 향후 10년 마을의 미래라는 주제는 정책적으로 3년 일몰제, 마을 역량강화 사업 등과 관계가 있음. 마을 내부 동력 차원으로 보자면, 뜻이 있는 주민 1인이 대표자로 보통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표의 부재가 사업의 종단을 의미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결국, 마을을 보살피고 키우는 일을 할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질문이 생기게 됨.
- 사람의 문제는 곧잘 마을의 자생 문제로 이해되는데 좀 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임. 마을의 ‘자생’이란 개념 자체가 관념적일 수 있음. 지원 사업으로 발생한 마을 활동과 교류 네트워크는 대부분 운영 조직을 필요로 함. 관의 지원이 없다면 이 운영 조직은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게 됨.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단체 등 제도화된 기구로 독립해야 하는 것인지, 경영 전문화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마을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공식 품앗이

조직이 되는 것인지 등 조직화와 경영 이슈가 최전선으로 떠오르게 됨. 일상의 문화를 누린다는 의미가 일상 문화 개혁을 위한 조직 이슈로 전환되는 딜레마가 생기게 됨.

- 실은 공모를 통한 사업이 진행 중일 때도 관공서가 사업을 위탁할 책임 있는 조직 또는 대표자의 존재 유무는 지금과 같은 지원 형태에서는 실질적 문제임. 마을에 과연 전일 근무와 전문성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현장 의견을 검토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이 요구하는 행정 전문성, 공동체 활동의 존속을 위한 다양한 기획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초창기에 배치한 적이 있음. 이 시도는 지역 정치·사회문화 환경에 의해 좌절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사안임.
- 전문 코디네이터 활용 및 인력양성과 관련해, 마을 일꾼을 길러내면서 이를 마을 직업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구상하는 후속 단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금처럼 관변 단체 성격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협소한 범위에 국한해,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를 길러내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어차피 주어진 업무가 준공무원 수준의 일이거나, 마을 행사 운영 책임 및 예술 감독, 마을 교육 기획자와 같은 것이라면 직무의 성격에 따른 일자리/일거리를 창출 또는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음. 마을 주민이 원하는 일의 형태 역시 현장 의견 조사 범위에 포함하면 좋겠음.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자문 보고서 (2)

8월 8일 중간점검 회의 / 이수철, 민경은, 김유진 참석

작성자 : 김유진

- 마을 인터뷰 중간 점검 회의를 통해 인터뷰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추가 인터뷰 및 향후 인터뷰 계획을 세움.
- 책임 연구원이 현재까지 인터뷰한 결과, 성남은 마을 사업의 역사가 긴 만큼 공동체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이 지점이 타 지역과의 차이점으로 보인다고 함. 프로그램에 특출한 강점이 있다기보다 시간의 저력을 높게 평가함.
- 인터뷰 중 발견한 지점은 마을 사업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최근 마을 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생겨나 다양한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추세라고 함. 마을 사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 마을 일이 사업화되는 경향성도 엿보인다고 함. 증가하는 예산이 마을 내부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 강사 비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느껴짐.
- 마을 단체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함. 기획자 양성 교육 사업이 시청, 재단, 파복 등에서 비슷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재단은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음. 마을 인력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함.
- 책임 연구자의 브리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컨설팅을 진행함.
 - 인터뷰한 모든 마을에 정확한 예산 규모를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인터뷰 질문에 추가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인터뷰도 보완하기로 함.
 - 특히, 사업비가 마을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갖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외부 인력에게 일회성으로 비용을 지급해 소진하지 않고 마을 안의 인력을 길러내 향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한 통찰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더 나아가서, 공공 지원 사업이 세금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주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영 조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대안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 마을 사업비가 결국 사업자 번호를 가진 기업 또는 단체를 길러내는데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
 - 주민에게 필요한 마을 문화란 무엇이고, 주민들의 자발성이란 무엇인지를 재검

토할 필요성. 이를테면, 행정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실제 주민 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공공과 협치를 진행하는 절차 및 지원 형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한, 마을 사업이 주민의 일상적 삶을 계도해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탈근대적인 삶-일의 통합 형태로 전환하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합한 판단인지, 단지 여가와 휴식에 필요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코디네이터를 서비스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임.

- 마을 사업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란 대체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란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커뮤니티 아트,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이 행정적인 이유에서 인위적인 구분을 통해 별도 지원되고 있는데 대체로 마을은 마을 스스로 문화예술을 활용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싶어 하고 문화예술을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임.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자문 보고서 (3)

10월 5일 최종원고점검 회의 / 민경은, 김유진 참석

작성자 : 김유진

- 마을 인터뷰를 마치고 최종 원고의 구성을 점검하고 10월 29일 마을연구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나눌 내용을 점검하는 자문회의를 실시함.
- 최종 원고의 목차 및 인터뷰에서 포커스를 두고 봐야 할 분석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목차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충실할 수 있게 연구 목적, 연구 절차, 연구 대상, 연구 분석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방향으로 자문함.
- 특히, 연구 절차 부분에서 처음 세웠던 연구 가설과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연구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기술하여 독자가 연구를 결과 중심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원고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함. 인터뷰 질문지를 처음 구조화한 이후 마을 인터뷰 진행하면서 견해가 바뀌거나 추가 질문이 생성된 과정, 자문 내용의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하기를 요청함.
- 인터뷰 분석에서는 인터뷰 내용 외 인터뷰 대상 단체의 마을 사업 이력을 정리해 신고, 인터뷰어가 느낀 마을의 특징적인 점을 요약 추가하여 독자가 마을의 맥락 위에서 인터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함.
- 인터뷰 분석틀의 경우, 마을별로 분석이 가능한 항목과 아닌 항목이 마을마다 다를 것이므로 인터뷰 내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되 마을 인력의 성장 및 자원 순환 부분에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함. 분석틀을 정리한 분석표 안에 내용을 너무 압축해 기술하지 말고 에세이를 쓰듯 분석 항목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술하였으면 좋겠다고 함. 이는 현장 방문을 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분석 결과만 요약 제시할 경우 맥락 파악이 어려우며, 맥락이 소실될 경우 관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마을 사업을 사업적 관점에서만 파악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
각 분석 항목을 구분하는 단위로 소제목을 추천함. 소제목이 중점적인 분석 지점을 드러내어 빠르게 이슈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함.

- 10월 29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존 인터뷰 질문을 중복하지 않는 방향을 고민했음. 이에, 최종 원고를 요약 발제하여 각 마을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공유한 후, 향후 마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테이블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도출함.
- 자문 내용을 참고해 원고를 라운드테이블 전까지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10월 12일 성남문화재단 이수철 과장과 한 번 더 회동해 원고 및 라운드테이블 관련 점검을 1회 더 실시하기로 함.

성남 마을공동체 사업 심층 연구 종합토론 발제문

<10년 후, 성남 마을 커뮤니티의 미래를 상상하며>

10월 29일 종합토론 / 성남문화재단 뮤즈홀

작성자 : 민경은

<2018 성남 마을 커뮤니티 심층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이 꾸준히 진행해온 생활문화 관련 연구와 연동되어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문화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지원해 오던 바이나, 각 마을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과 각 마을 공동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찾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해결법을 찾아보고자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현재 성남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모색되는 중으로 성남문화재단은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새 시정 공약에 대한 고민, 현재 마을 지원 사업이 독립적 기구로 설치될 것이라 예상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흡수 될 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재단의 지원 역할의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성과평가/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조사/지역현안 연구를 하는 종합적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해 온 중에 마을 커뮤니티 사업 실행 단체를 방문하여 활동가의 목소리를 길어 올리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성남 마을 커뮤니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모색이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며 재단의 지원 역할의 변화에 기초가 되고자 한다.

<2018 성남 마을 커뮤니티 심층연구>는 마을 커뮤니티의 자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향후 10년 마을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계획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지역 내 마을 커뮤니티의 의사결정구조와 인력양성구조를 구축해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발휘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향후 10년 마을의 미래’라는 주제는 정책적으로 3년 일몰제, 마을 역량강화 사업 등과 관계가 있다. 마을 내부 동력 차원으로 보자면, 뜻이 있는 주민 1인이 대표자로 보통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표의 부재가 사업의 종단을 의미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결국, 마을을 보살피고 키우는 일을 할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생’이란 개념 자체가 관념적일 수 있다. 사람의 문제는 곧 마을 자생 문제로 이해되는데 좀 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마을 활동과

교류 네트워크는 대부분 운영 조직을 필요로 한다. 단체들의 경영 전문화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행정은 변화하고 있다. 관의 지원이 없다면 이 운영 조직은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단체 중에도 성남문화재단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3년 일몰제가 올해로 마지막인 단체가 있다. 그렇다면 3년 일몰제 이후의 단체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품앗이 조직이 되는 것인지, 품앗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탄력 있게 만들어가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 조직화와 경영 문제가 최전선으로 떠오르게 된다. 일상의 문화를 누린다는 의미가 경영 조직화의 문제가 되는 딜레마 앞에서 마을 커뮤니티의 자생 문제는 사람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공모 지원 사업은 지역 주체들의 협력을 지원하기보다 경쟁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서로의 역량에 기대어 실질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장치를 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주체가 처해 있는 마을 커뮤니티의 환경과 성장의 속도에 딱히 맞춰져 있지도 않다. 성남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사업도입기-사업확대기-사업성숙기로 단계를 설정하여 마을의 구체적인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문화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변화,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마을 커뮤니티의 성장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협력의 관계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마을 커뮤니티 사업 운영 단체는 나눠 주기 식의 지원으로 예산이 깎여 계획에 따른 실행을 할 수 없었고, 3년 일몰제로 진행하는 구조 안에서는 점차 확대되는 마을 공동체의 사업과 방향에 따라 예산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3년 일몰제의 흐름이 마을 공동체의 성장과 흐름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3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지원이라 여긴다는 해석도 있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마을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살폈는데, 사랑방 문화클럽이 마을 축제에 참여하고, 재단의 미디어센터에서 양성된 시민이 마을 아카이빙을 하여 마을 축제 때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등 서로의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활동해 온 마을 커뮤니티의 대표들 외에 다른 인력들끼리의 네트워크 및 협력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내부 인력의 양성과 관계가 깊다.

마을 사업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란 대체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체로 마을은 마을 스스로 문화예술을 활용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싶어 하고 문화예술을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과정적으로는 교육의 형태나 축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과 마을 커뮤니티에 대한 각 마을의 철학이 평가되지 않고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의 활용과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내용적으로 중요한 연결 지점이 있는데 마을 커뮤니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것만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인문·사회적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리서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리서치들은 실행연구로 운영되어 마을 문화커뮤니티 사업의 소스와 기반이 되도록 하는 연구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코디네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파복 공동체 등에서 비슷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어 마을 커뮤니티 활동가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피로가 높은 상태이다. 성남문화재단의 특화된 교육으로 문화예술에 포커싱이 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직접 기획을 해야만 하는 기획자 양성 과정보다는 마을 인력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해주기를 바라는 단체가 있어 재단이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또한, 전체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마을교육으로 현장에 맞춤형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마을을 예술로 색다르게 감각,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인 기획을 하도록 촉진 하는 역할로서의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적극 검토할만하다고 여겨진다. 관이 요구하는 행정 전문성, 공동체 활동의 존속을 위한 다양한 기획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초창기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 이 시도는 지역 정치·사회문화 환경에 의해 좌절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사안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태평동의 마을 창작소를 예로 레지던시 작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매개하여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미래는 며칠, 몇 개월, 몇 년 후인가? 지난 5천년의 역사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5천년의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과거화 하여 폐기하는 것이 아닌 해석해내는 역사화 작업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이쯤에서 우리는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민에게 필요한 마을 문화란 무엇이고, 주민들의 자발성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마을 주민의 특성에 맞게 기획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활동인지, 혹은 행정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한 조직에 참여인지?’ 재차 검토해 봐야 한다.

마을 커뮤니티 사업은 주민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작하였고 변화하려는 중이다.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실제 주민 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공공과 협치를 진행하는 절차 및 지원 형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마을 커뮤니티들이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저력 안에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문화, 커뮤니티 아트, 문화예술교육 등이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는 상황, 마을 커뮤니티의 주제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의미를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을 커뮤니티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와 예술은 무엇인가?’ 마을 커뮤니티는

궁금해 하고 있다.

마을 커뮤니티의 미래, 우리의 삶을 위한 고찰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뜬금없지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나로부터 7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미래라고 보고, 무엇이던 그 시간을 가늠해서 결정한다는 인디언들의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미래. 충분히 생각해 볼만하지 않는가?!

성남 마을문화공동체 사업 심층연구

발행인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이상훈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代)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처	(재)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성남문화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